

교회소식

- 다음 주일(7월19일) 출석은 하모니 구역(안상민 집사), 소망 구역(김동수 장로)/은혜 구역(서영수 장로)
주일 아침 예배당을 정리/소독하는 일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고 10:30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예배 Zoom 오전 10시
 - <https://us02web.zoom.us/j/88287526478>
 - Meeting ID: 882 8752 6478
- 영어예배 Zoom 오후 12시
 - <https://us02web.zoom.us/j/9390205125?pwd=VnM1Y3pxTjJBS1FRdnl4RkFyUHBzUT09>
 - Meeting ID: 939 020 5125
 - Password: Sk

섬기는 사람들

다음 주 출석: 하모니 구역, 소망/은혜 구역
다음 주 대표기도: 최성국 집사 (시 139:1-12, 23-24)
이번 주 친교:
다음 주 친교: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27호

2020년 7월 12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2pm, Zoom	유치부	10am, Zoom
주일 예배	11am, 본당/YouTube	유년부	10am, Zoom
새벽기도 (월-토)	6am, YouTube	중·고등부	11am, Zo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82 8752 6478 (Sunday School) / 939 020 5125 (EM/Youth)

성경공부 및 모임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Zoom
구역 모임 TB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고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Worship & Praise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70장(통79장) “피난처 있으니” (1, 4절) God is Our Refuge Strong
대표기도 Prayer	시편 119:105-112 임은도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7:7-12 Matthew 7:7-12
설교 Sermon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30장(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3, 4절)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10,000 Reasons”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Luke 18:1-8 Leader
Sermon	“Persistent Faith”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지난 주 주일 말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마태복음 7:1-6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판단의 기준이 나의 밖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을 받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밖에서 보아야 보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이 눈을 성하게 합니다. 들보가 든 눈으로는 온 세상이 들보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판단하고 지적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선생은 자기 말에 대해서 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에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웃을 함께 판단하는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판단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판단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정의로운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기 쉽고 자기를 거기에 비추기는 어렵습니다. 정의감에 불타 세상과 이웃을 정확히 판단할수록 자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이,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경외함으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좀더 나아가 급하게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드리기 위해 한 숨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고,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않고, 말하기 보다는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임해 들보를 빼면 자기를 볼 뿐 아니라 형제의 사정도 훨씬 잘 보게 됩니다. 잘못 투성이여서 비판 받아 마땅했던 형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내와 자비로 역사하고 계신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할 말이 있다면 그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말하며, 사랑으로 말합니다. 될 때까지 말합니다. 될 방식으로 말합니다. 때론 입을 닫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 했는데 안 듣는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들지 못할 상태인 걸 모르고 좋은 말만 던져버린 자기 책임인 걸 압니다.

그러니 때에 맞게 말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이라도 살피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말하면 저주 같이 여겨집니다(잠 27:14). 지혜는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도, 불의를 미워하는 의협심도 아닙니다.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분께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얻어집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급한 말의 실수에 대해 형제에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형제가 말 실수를 해서 성급히 비판할 때, 시간이 걸리는 줄 알고 용납하며 받아줍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받았다는 믿는 사람들, 특히 세상의 빛이요 증인의 책임을 맡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빛에 자기를 살피는 경외함을 잊으면, 자기도 지키지 않는 정의로 세상을 가르치려 들고, 세상의 상황도 모르고 때에 맞지도 않는 좋은 말들만 쏟아내기 십상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살펴야 합니다. 눈을 뜨고 말씀과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비판은 쉽고 반성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하긴 쉽고 기다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고 책임이기에 게으르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눈을 빌어 세상을 살피고, 지혜를 얻어 말해야 하겠습니까.